

##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정금희\*\* · 김신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녀를 튼튼하고 건강한 아기로 키우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영아기 동안 아기의 건강은 일생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수유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어머니는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어머니로서 새로운 역할의 하나인 양육행위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기 수유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수유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아기와 어머니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이며, 아기 양육시 최초로 결정해야 할 선택이다(정금희, 1997).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대한 결정은 미래 아기 건강은 물론 어머니의 양육기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기의 수유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결정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족 역동적이고 개인적 고려의 복잡한 상호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Marchand, Morrow, 1994).

19세기 이후 산업기술과 식품 가공업의 발달로 인공 영양인 우유가 모유의 대체식으로 만들어진 이래로 모유

수유율이 계속 감소되어 왔다. 1960년대 초부터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운동 등과 관련하여 모유수유율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1970년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모유수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의료계의 노력으로 모유수유율이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국내의 모유 수유율은 1970년 이래로 현저히 감소하여 1982년 68.9%에서 1997년에 14.1%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이 같은 어머니의 수유실태와 관련되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대체식품인 인공유의 발달 등은 물론 병원 분만과 관련된 여러 의료 제도의 상황 등이 관련될 수 있다(김효진, 1993). 또한 어머니 자신의 수유에 대한 태도와 신념, 수유에 대한 의지나 수유경험은 물론, 모아의 건강상태와 분만유형이나 사회적 지지 등도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박옥희, 1992; 변수자, 1995; 송지호 등, 1993;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한경자, 이자형, 변수자, 1994; Aberman & Kirchoff, 1985; Dusdicker., Booth, Seals & Ekwo, 1985; Goodin & Fried, 1984; Huston, 1986; Margaret & Linda, 1990; Matich & Sims, 1992).

\* 이 논문은 1997년도 한림대학교 지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 II. 문헌 고찰

지금까지 아기 수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모유와 인공유의 장단점, 수유시 어려운 점이나 출산 직후의 인공수유와 모유수유율과 지속시기, 수유방법에 대한 태도나 인식과 실천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근래 1990년 이후에 국내외의 간호학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방법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모유나 모유수유 그 자체 현상과 경험에 대한 인식과 모유수유 지속과 관련된 감정, 관심, 갈등 등에 대한 몇몇 논문이 보고되었으며(김신정, 이정화, 1993; 김신정, 양숙자, 1997; Brottorff., 1990a, 1990b; KIm S. Jeong G. 1999; Wrigley & Hutchison, 1990), 모유수유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김화숙, 1991; Dusdicker et al., 1985; Houston et al., 1988). 그러나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유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에 대해 관심을 보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신체, 정신, 사회적 상호작용과 복잡한 인지 과정으로, 이런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전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서 이런 심리 사회적 과정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간호학에서 많은 근거이론 연구가 행하여지고 있다(Wilson, 198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으로 어머니의 관점에서 어머니가 아기 수유방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머니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상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수유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 어머니와 가족이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 간호중재 전략의 개발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기의 수유방법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과정을 탐구하여 간호실무에 직접 응용될 수 있는 실제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는 "어머니가 수유방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아기 수유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의 영양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나 장단점에 대해서 연구되었으며(Dickman, 1979; Camerson, 1983), 모유수유 실천율이나 추세와 모유수유 실천의 성공 및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있다(권숙희 등, 1993; 김화숙, 1991;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이미라 등, 1993; Harrison, Morse & Prowse, 1985; Wrigley & Hutchinson, 1990).

모유수유의 경험 자체와 관련된 연구(Bottorff, 1990a & 1990b; Jones, 1986; Margaret & Linda, 1990)나 모유수유시 문제점이나 어려움(Kearney, 1988)에 대한 연구, 어머니 또는 의료인의 모유수유 태도 유형과 지식 정도, 태도와 지식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김혜숙, 1995b; 변수자 등, 1994; 송지호 등, 1993; 정문숙, 1993; 정혜경, 이미라, 1993; Kocturk & Zetterstrom, 1989; Kearney, 1988),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송지호 등, 1993),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이충원, 1993; Parlato, 1990; Helsing, 1990; Judy, Mary & Mary, 1985), 모유수유증진 방안(남철현, 1984), 모유수유와 관련된 자존감, 부모의 역할(Murphy, 1988)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외에도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모유수유에 대한 직접관찰을 위한 사정도구 개발(Jensen, 1994; Linda & Debi, 1990; Maureen & Minchin, 1989)과 산전·후 유방 마사지(김옥원, 1974; 신재순, 1986)와 간호중재(Yeung & Kaufman, 1988; 정금희, 1997; 남은숙, 1995) 등 간호중재와 관련된 몇몇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수유방법의 효과, 모유수유에서 어려운 점이나 출산 직후의 수유율과 지속시기,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실천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기 수유방법을 선택하고 의사결정하는 지에 대한 관심을 보인 연구는 드물다.

아기수유방법에 대한 어머니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란,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이다(Maclean S. L., 1989). 이런 의사결정에는 개인적 상황, 규범과 도덕과 같은 문화, 물리적 환경, 지지체계, 스트레스, 문제해결과정, 속성, 보상, 동기 등의 여러 잠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떻게 사건을 인식하





인지의 여부와 가정의 경제적 상태, 아기에 대한 가족과 자신의 기대나 관심을 고려하면서 수유방법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적 조건>과 <기대>가 중심현상인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을 가져오는 선행조건으로서 인과적 상황으로 나타났다.

- 기대 : "첫 임신이고 첫 아기라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고 잘 자라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랑.... 그래서 수유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하게되고... 결혼하면서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시집에서는 귀한 아기라, 아기도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고요. 집에서도 장녀라서 모든 분들이 뱃속에 있는 아기랑 아무튼 모든 것에 기대를 많이 하시고 그래요"
- 상황적 조건 : "많은 사람들이 분유를 먹이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상황이나 환경이 (젖을) 먹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먹이기로 했어요... 직장이 있어 뭐 어쩔 수 없는 거나 젖이 잘 안나오면 몰라도.. 모유가 많이 나오는데 굳이 우유 먹일 생각은 없어요". "저는 젖꼭지가 정말 커요. 전번에도 먹어려다 오른쪽은 그래도 조금 먹었지만, 이쪽(왼쪽 가슴을 가르치며)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모유가 더 좋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은 IMF라 더 그런 것 같아요. 분유 먹일 돈 있으면 한 폰이라도 더 모아서 저축해야 한다고 "

## 2) 맥락

맥락은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장으로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현상을 조절하는 상호작용 전략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모유수유는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당연한 순리로, 모유의 우수성에 대해 인정은 하면서도 주위의 인공수유가 보편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 있다. 즉, <모유수유의 당위성>, <사회적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의 중심현상으로서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정도가 달라지고, 이후의 상호작용 전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모유수유의 당위성 : "저희(남편과 자신)는 그걸(모유수유) 계획이나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글쎄 분유는 요즘은 우리나라도 잘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간이 길고 짧고 차이지. 대부분의 어머니가 모유를 당연히 먹일 꺼라고 생각했거든요." "모유를 먹인 애들이 우유 먹인 애들보다 많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잔병이 없어

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유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 사회적 인식 : "요즘은 다 분유 먹이잖아요..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워낙 완강히 모유를 먹인다고 하니까. 아유. 뭐 젊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다고들 해요. 옛날에는 분유먹이는 사람이 이상했을 텐데..다 분유먹이니까 그러나 봐요"

## 3)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참여자가 전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이며 목표로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결과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모유수유의 당위성이나 많은 어머니가 인공수유를 하는 사회현실이라는 맥락속에서, 아기 입장에서 아기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또 어머니 자신에게 미칠 결과도 생각하면서 아기에게 적절하고 아기와 공유하고 사랑을 주고 어머니로서 도리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로서 자각>, <어울림>, <헤아림>의 범주들을 통해서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인 중심현상으로 발전되었다.

- 어머니로서 자각 : "저희가 따로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랑 거리가 있어서.. 두분 다 뭐 그런 간섭하는 분도 아니고요... 저희도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게 참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바로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임신하면서 아 모유를 먹여야 겠구나 하고 제 자신이 생각하고... 또 당연히 이걸 내가 해야 하겠구나 하고 그랬나 봐요" "남보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 아니까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그거는 뭐... 남 애기는 별로 신경 안써요." "굳이 남편한테 적먹이고 우유 먹이는 것 까지도 함께 해야 하는가 하고요. 회사 일도 힘들텐데. 당연히 저밖에 줄 수 없잖아요." "아직 자녀나 자식에 대해 뚜렷하지는 않아도 뭔가 줄 수 있구나..참 부족하지만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자마자 분유를 먹인다고 생각하면 아기에게 잔인하기도 하고..아기에게 좀 더 줄 수 있는 사랑을 어머니쪽에서 차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에게 내 안에 있는 모유를 먹이고 정 같은 것도 먹이고"

■ 어울림 : "물론 내용에서 아기가 태어났지만 계속 해서 함께 뭔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기대되고요... 아무래도 뱃 속에서부터 얼마큼 함께 먹었으니 모유가 잘 맞을 거 같아요" "우선은 아기가 모유같은 경우에 쉽게 적응하고...근데 분유같은 경우 적꼭지를 빠는 것이 아니라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고.." "애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고 애에게 필요한 것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게 분유를 주는 장점이 아닐까요"

■ 헤아림 : "저는 아기 한 사람이 태아가 성장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아기를 먹이는 것은 바로 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 이라면 내 몸에서 나온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글썄요.. 아마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아기를 위해 먹이는 것에서부터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인데요. 사실 신학대학원생인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보다 그런 개념 떠나서 아기를 생각하면서 아기가 성장할 때 까지는 휴학하고 아기를 위해 시간을 배정했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어요" "평상시 생각할 때도 모유가 더 아기에게 좋고 정서나 아니면 커서 점점 크는 데도 몸 전체에 병치레나 이런 것도 없고 아기에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요." "분유에 영양가가 더 많을 것 같아서... 분유 먹는 애들이 더 통통하고 살도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모유먹이는 애하고 분유먹이는 애하고 틀리더라고요. 병치레나. 이제 주위에서 많이 안먹이니깐 그게 티가 나요. 확실히 병원에도 덜가고 애가 잠도 잘자는 것 같고. 순하고요" "차이가 있겠죠. 모유는 영양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분유는 여러 가지 영양제나 이런 게 많이 섞여서...단지 모유는 엄마가 직접 먹이고 그게 그거지요."

#### 4) 증재상황

증재상황은 현상과 관련된 행위, 대응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힘들었던 첫 수유경험이나 수유로 인한 피로와 병원 입원으로 인해 모유수유에 실패한 경험 등과 같은 '고생스러운 모유수유 체험'과 수유실천과 관련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 수유와 관련되어 불편하거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수유실천의 편리성'을 따지게 되고, 공적인 자리

에서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노출하기 불편하고 모유 수유하기를 기대하는 '가족의 압력' 등의 외적인 요인들과 수유방법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부족이 중요현상과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재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편안함의 추구>, <외적 환경의 영향>, <지식부족>이 증재상황으로 나타났다.

■ 편안함의 추구 : "적이 너무 크니까 애가 빨아야 되잖아요. 애가 짜증을 내고 울고 적몸살도 앓고 그러니까 아예 산모도 편하고 애도 편하게 처음부터 잘못했다 뭐 그랬어요." "첫 애는 혼합유 먹이려고 했는데 애가 적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적만 죽 먹었는데 그런데 땀 때 너무 힘들어서, 적만 찾아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몸이 불편해서 허리도 되게 아프고, 적구기도 힘들고 입원중이라 그런지 수술도 해서 자체가 툴려서 그런지 되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체를 못 잡아서 몸이 비정상인지 서툴러서 그런지 그게 되게 심하게 아프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다음엔 적먹이라고 불러도 안 갔어요" "제가 (애기때)딱 물고 두 세번 빨다가 그만 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내 애기가) 그러면 어찌나 싫어요. 빨다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그때는 조금후에 있다가 먹이면 된다던데..." "엄마쪽에서 생각하면 우유가 편하겠지요. 그래도 그냥 생각하기에 몰만 데워서 타서 그냥 애기에게 먹이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모유도 잘 때 우유를 타서 먹이는 것이 더 귀찮다고. 그렇게 보면 모유가 더 편하다고요." "애가 울면 그냥 적 물리고 잔대요. 그러면 엄마도 함께 자면 된대요(웃음) 좀 편한 것이 뭔가 하는 생각 많이 해요."

■ 외적 환경의 영향 : "남한테 아기 데리고 다니면서 크게 보기 싫은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요.. 아노 우리는 괜찮은데 (흐흐)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막 해서 아무데서나 막 적먹이고 그런 것 보기 안 좋다고요...막 속 살 다 내 보여 가면서. 옛날하구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집에서는 괜찮은데 외출했을 때 그때는 우유를 타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울면 차에 가서 먹이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데 가시고 그런다고." "나도 분유로 먹고 싶은데 시부모님의 눈치도 보이고, 자주 적을 먹이기를 원하시니까 힘들어요..하다가 힘들면 그만 두더라도 시작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텐데...", "형님이 함몰유두라 적을 못 먹었는데 시어머님이 내내 적을 못먹었다고 그러셔서..형님은 노력을 했대요. 나름대로 먹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니까, 시어머님은 자주 적 안 먹었다고 뭐라 하시

구요. 서운해 하세요." "저희 엄만 자꾸 제가 몸이 약하니까 그냥 자꾸 분유먹여라 하세요. 요즘은 분유도 다 좋다고요"

- 지식부족 :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지만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병원이건 어디에서도 뭐 어떤 게 좋다. 해라. 그런 거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친척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먹 구구식으로 좋대더라 해서 먹이는 거지요 뭐." "알고 있는 것만 책에서 나오지 특별한 것이 뭐가 없더라구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런쪽 책을 사서 보긴 봤는데 특별한 게 써있는 게 없더라구요. 아 그래서 비슷비슷하겠구나 생각하고 별 특별히 생각 안해 봤어요." "제가 딸말인데다가 동년배 보다 빨리 결혼해서 주위나 친구들에게 수유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게 없어서 마음을 굳히기가 어려웠어요.."

5) 상호작용 전략

전략이란 어떤 조건 속에서 현상을 관리하고 대응하려는 대상자의 작용과 반작용을 의미하는데, 상호작용 전략은 과정적이고 발전적 성격의 전략으로 목표 지향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전략이 <다져나가기>로서 가족과 친구 등 주위 사람과 계속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로 선택한 수유방법에 대해 적극적 실천방안이나 대안방법을 모색하고 결정을 확신하며 이를 확고히 하면서 최종의 선택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즉, 상호작용전략으로는 <의사소통>, <검토하기>, <강화하기>, <확고함>을 통해 <다져나가기>로 나타났다.

- 의사소통 : "작은 언니랑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이러는 게 좋다 뭐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자꾸 물어보게 되고 전화도 하고 그래요." "거의 애 키우는 친구들이랑 ..놀러가서 제가 모르는 것을 상대 친구가 모를 수 있고. 그 친구가 아는 걸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거 그렇겠구나 하고"
- 검토하기 : "저도 진짜 어떤 때는 감이 안 와요. 케네들(친구들)도 다 떠날 말을 하니깐, 나도 그냥 먹여야지 하다가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고.... 나도 물론 분유먹일라고는 하지만 생각은 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병원에서든 얘기 분유 먹이는 걸 보면... 뭐 나쁜 걸 먹일라고요"

- 강화하기 : "텔레비 선전이나 광고에 보면, \*\*\* 분유라든지 혹은 \*\* 분유를 슈퍼에서 관심있게 보면 이게 좋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친구들도 그러거든요. 왜 적 같이 그런 걸 먹어느냐고요...그럴땐 정말 아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같아서 남편이랑 다시 고민하기도 하고.. 아직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남편이랑 생각하면 아기를 위해선 잘 한 것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일생에 한 번 밖에 못 주니까요.. "저도 출산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는데 적병을 그래도 예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갔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나면 겨울이니까 감기도 걸리고 몸이 안 좋으면.. 그래도 아예 준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들만 준비했어요(출산 준비물을 보여주면서)"
- 확고함 : "모유 먹이고 적을 잘나게 하는 맛사지 비디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방법도 좀 알아두고" "다른 건 생각 안 했다고 봐야지요. 한 번 결정하면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나 아기에게 이 방법(혼합유)이상의 것이 없고요. 이전 아기 나아서 먹이는 것만 생각하면 될 때라고 생각하고.. 어제는 가서 분유도 사고 정말 어젠 내일 모래잡아요. 준비도 다 했어요"

6)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인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에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이 취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타협>, <조절>, <최상의 결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수유방법에 대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검토하기>, <강화하기>, <확고함> 등의 상호작용 전략을 통해서 결정에 이르게 된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보상이나 수유방법을 병행하는 타협안을 결정하거나, 혹은 일차적으로 선택한 수유방법을 실천해 본 뒤, 다른 방법을 고려하거나 변경하는 조절안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또는 자신이 가장 좋다고 확신하는 최상의 수유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 타협 :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외제고 비싸서 좋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좋은 것 먹어자고 하는 거니까 젤 좋은 걸로 사두려고요. 다 좋은 걸로 사냈는데 ..환경호르몬이다 그런게 없고 젤 좋은 걸로 먹여야지요" "직장 때문에 일단은 적을 먹이고 나중에 분유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낳고 복잡하니까.. 적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분유라고 생각해요. 보나마나 분유먹일꺼예요. 안나올 꺼예요."

나오면 두가지를 다 섞어서 먹일 생각인데"

- **조절** :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우유를 먹여줬지요. 끝까지 모유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해 보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아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유를 병행하면서 같이 먹이던지요" "먹일 수 있는데까지 먹이다 나중에 우유를 먹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분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아기가 젖을 찾으면 그편 할 수 없지요. 젖을 먹이려고 해요."
- **최상의 결정** : "아무래도 병원에서 아기 젖병을 빨다 집에 가서 먹이면 힘들 수 있더라도 모유는 먹여야 되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와 엄마를 생각해서 두가지를 모두 먹일 생각이예요. 모유 줄 여건이 되면 모유주다가 바쁠 때는 타서 놓았다가 분유를 주며 섞어 먹이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거지요." "모유가 나오도록 노력하면서 모유도 먹이고, 또 좋은 분유 준비해서 분유도 먹이고 그래야지요."

이상의 결과 통해서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선택하면서 경험하는 과정에 관한 파라다임 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해1>에서 제시하였다.

## 2. 관계진술 및 가설적 관계 개요

본 연구자료에서 나타난 범주들의 분석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진술과 가설적 관계개요가 나타난다.

### 1) 관계진술

관계진술은 근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관계, 맥락, 중재상황과 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의 속성사이에 가설적 관계를 정도의 영역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간의 관계진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아기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정도가 커진다.
- ② 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하게 받아들일수록,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정도가 커진다.
- ③ '외적 환경의 영향'이 클면 클수록,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은 '주위사람과의 의사소통', '검토하기'로 대체한다.
- ④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정도가 클수록, '다져나가기' 이후에 '최상의 선택'을 하게된다.

- ⑤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정도가 낮을수록, '다져나가기' 이후에 '조절', '타협'을 하게된다.

### 2) 가설적 관계 개요

가설적 관계개요(story line)는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분석적 기술에 대한 개념화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수유방법에 관해 의사결정하는 과정 경험에서의 가설적 관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관심과 가족의 기대속에서 모유수유나 인공수유가 가능한 환경, 상황은 물론 다양한 수유방법에 대한 관찰한 경험이나 가정의 경제 상태를 토대로 아기 수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수유방법을 결정하려는 어머니는 모유가 우수하며 모유수유는 당연한 순리라는 모유수유의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수의 어머니가 인공수유를 하는 우리 사회 환경속에서 결정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사랑을 주고 어머니로서의 도리와 역할에 대해 자신의 주체적인 모성으로서 자각과 함께, 어머니 자신에 대한 고려는 물론 아기 건강에 이롭고 아기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아기에게 적절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어머니와 아기의 특별한 상호교류, 공존으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모성으로서의 인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성 인식을 통한 조정으로서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편안한 수유방법을 추구하고 싶은 기대와 가족 내에서의 수유에 대한 가족의 태도, 그에 따른 가족 압력이나 젖 노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관련된 외적 환경요인과 더불어 수유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지식 부족의 영향을 받게된다.

어머니는 남편, 친구,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유결정에 대해 망설이거나 결정을 번복하면서 계속 비교, 검토하고 수유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결정을 강화하면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확신하며 어떤 수유방법으로 실천할 것이라는 의지와 결정을 확고히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머니는 수유방법을 의사결정하는데 있어 타협이나 조절을 하거나 최상의 선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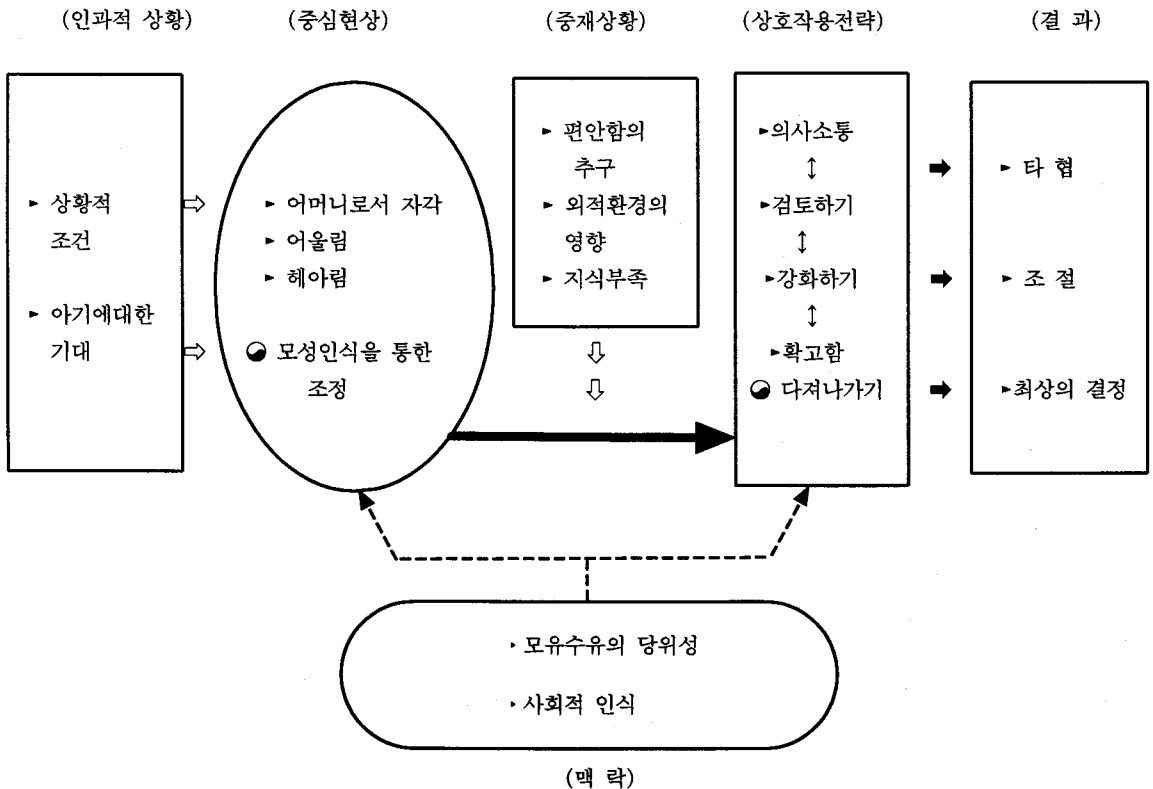


〈표 1〉 파라다임에 따른 개념, 범주와 과정분석 결과

현상의 명명화	범주의 명명화		파라다임
	하위범주	상위범주	
가족의 기대, 아기에 헌신하는 마음, 첫입신에 대한 걱정, 아기에 대한 관심	관심과 걱정	기대	〈인과상황〉
모유수유가 가능한 환경, 어머니 직장 수유에 적절한 신체조건, 젖먹일 수 없는 상황, 수유관찰기회, 자신도 모유로 양육됨	상황적 가능성	상황적 조건	
경제적 이득, 가정의 경제상태, 어려운 사회경제분위기	경제성		
필연성, 자연스러움, 정상적인 것, 모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 분유에 대한 무관심, 선택이 아니라 책임	당연한 순리	모유수유의 당위성	
모유의 우수성 인식, 초유의 장점 인정, 모유에 대한 긍정적 사회태도	모유우수성에 대한 인정		〈맥락〉
인공수유의 보편성, 인공수유에 대한 안도감 다수의 선택을 따름, 모유수유의 희소성	인공수유에 대한 사회적 수용	사회적 인식	
어머니 자신의 결정, 가족의 간섭 무시, 어머니 자신의 주관	주체성		
어머니 역할, 어머니로서 도리, 어머니만이 줄 수 있는 것, 최선의 아기양육법, 아기양육을 위한 준비	어머니 역할	어머니로서 자각	
사랑을 주는 것, 정을 먹이는 것, 특별한 선물, 주는 기쁨, 주고싶은 마음	사랑을 주는 것		
모아간의 공존, 모아의 접촉, 특별한 상호교류, 아기와 의 공유	함께 나누기		
아기의 적응력, 아기의 선호도, 아기에 대해 적절한	아기와 의 조화	어울림	〈현상〉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
아기입장에서 배려, 아기를 위한 최선의 행동, 아기인생을 위한 결정, 아기를 고려한 환경, 아기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	아기에 대한 우선적 고려		
아기건강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염원, 환경호르몬에 대한 우려, 빠른 성장과 발달, 면역성이 좋음, 좋은 성격형성, 정서적 안정, 영양학적 우수성	아기건강에 대한 고려	헤아림	
어머니 자신의 건강상태, 몸매관리, 산후 신체 불편감, 산후회복 지연	어머니 자신에 대한 고려		
젖부족 경험, 부정적 첫수유 경험, 모유수유의 어려움 경험, 수유로 인한 피로, 산후입원과 관련된 모유수유실패 경험	고생스런 모유수유의 체험		
젖부족 예감, 수유실천시 어려움에 대한 걱정, 모유수유 실패의 두려움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한 우려	편안함의 추구	
모유수유의 수월함, 외출시 불편함, 번거로움	수유실천의 편리성		
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 젖먹이기 장소의 제한, 젖 노출에 대한 창피함	젖노출 거부감		〈중재상황〉
가족중심적 판단, 가족의 모유에 대한 가치부여, 가족의 모유 선호 태도, 시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압박, 인공수유결정에 대한 가족의 묵과	가족의 압력	외적 환경의 영향	
방법이 비슷함, 영양학적 동일함, 공통된 특성	수유방법의 유사성		
수유관찰기회의 부재, 정확한 정보부족, 의료인의 소극적 태도, 교육기회의 부재	지식과 정보부족	지식부족	

현상의 명명화	범주의 명명화		파라다임
	하위개념	상위개념	
가족과 친구의 권유, 가족의 지지와 충고, 배우자와 상의	의사소통		
결정에 대한 갈등, 주저함, 결정의 반복과정, 지속적 비교	검토하기		
다짐하기, 정보탐색, 대안방법 사전 예방, 적극적 실천방안 고려	강화하기	다져나가기	〈상호작용 전략〉
결정에 대한 확신, 실천지속 의지 망설이지 않음, 수유를 위한 준비실천	확고함		
절대적 모유수유실천, 두가지 방법의 장점 모두 갖기	가장 좋은 방법의 선택	최상의 결정	
일차적 모유수유시도, 모유수유실패후 인공수유로의 전환 모색 상황적 조건하에서 모유수유 선택	다양한 방법모색	조절	〈결 과〉
상황적 어려움으로 수유방법의 병행, 최상의 분유준비로 보상	보상과 대처	타협	

〈도해 1〉 어머니의 수유방법 의사결정 경험에 대한 파라다임 모형



#### IV. 논 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적절한 수유방법을 선택할 때는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측면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측면이 관련된다(Lucille M., Mary H. M., 1994).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수유방법을 처음 고려할 때 직장, 수유에 적당한 유방 상태, 체질, 수유를 관찰한 경험 등의 어머니 주위의 상황적 조건이 수유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시기가 사회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이어서 어머니들이 중산층인 경우에도 "여자가 살림하면서 남자는 뻘 뻘지게 벌어도 번다 못번다 하는데 이거(모유수유)라도 잘 해서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요. 그렇게라도 도와야지요"라는 진술에서처럼 사회 경제적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어머니가 태어나게 될 자기 아기를 위해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현상은 바로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모든 어머니가 영양과 아기 성장 발달이나 정서와 성격 등 아기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어머니 자신의 입장에서 혹은 아기입장에서도 각각 별개로 생각하면서 아기와 함께 나눌수 있고 아기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유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는 결국 모성애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해 주체적으로 자각하면서 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수유방법에 대한 결정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가 어떤 방법으로 수유를 하든지 아기에게 수유를 한다는 것은 아기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모성에 대한 자각은 바로 어머니 자신 스스로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성인식을 통한 자각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어머니로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는 모유수유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수유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이 인공수유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즉, 일반적 통념으로 모유는 좋은 것이니 먹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공연하게 젖을 노출하고 아기에게 먹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의 두가지 상

반된 이중 규범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또한 증재상황으로서 가족 구조 속에서 한 참여자가 제시하는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 딸이 몸이 허약하고 위로 1살된 애도 하나 모유로 키웠으니까 이제는 야..야.. 젖 맥이지 말고 우유맥여라. 다 쓸데없다. 우유맥이는 게 좋다 그러시면서...저희 시대 형님이 그러세요. 너는 꼭 모유맥여라. 안그러면 두고두고 시어머님이 안먹었다고 하고...내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당하고 복장이 터진다"라는 언급 속에서도 수유에 대한 이중적 가치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이중 규범과 가치로 인해 어머니는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최종 결정해 나가는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다져나가기>로 나타났는데, 주위 가족과 친구, 남편에게 의견을 묻고 정보를 얻으면서 자신의 결정이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하고 바꾸면서 자신이 결정한 방법을 확고히 하고 준비하면서 다져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수유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지지나 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 12명의 참여자중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수유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를 통해 아직도 의료인들이 모유수유를 비롯해 수유방법에 대해 적극적 증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수유방법을 결정하는데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나 영양학적 측면, 수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등 수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머니가 최선의 수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적극적 간호증재를 함으로써 어머니는 수유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타협안이나 조절안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안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어머니로서의 긍정적인 자각과 경험을 하여 이후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머니는 수유방법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결정 하든지 간에 일차적으로는 모유수유에 대해 고려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공수유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반면 모유수유 경험과는 무관하게 모유수유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선입견이나 직·간접적 경험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주위사람들로부터의 경험이나 정보를 통해서도 습득되지만, 어머니가 자주 접하는 대중 잡지나 매체에서 어머니들에게 그런 인식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아기수유는 어머니의 양육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최초의 결정으로 미래 아기 건강에 중요하다. 어머니가 아기수유방법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족 역동적이고 개인적 고려의 복잡한 상호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Lucille M, Mary H. M, 1994). 따라서 어머니 관점에서 어머니가 아기 수유방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하는 지에 대한 경험을 확인함으로써, 최상의 결정을 할 뿐 아니라 결정하는 동안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식 제공을 포함한 효과적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어머니가 아기수유방법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지에 대한 실제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은 연구에 동의한 총 12명의 임신한 여성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함께 하면서 자료의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수집하였고, 수집기간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였다. 자료수집은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면담시간은 20-60분 정도이며, 면담회수는 1-3회였다. 면담내용은 녹음한 뒤 기록하여,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총 112개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런 개념에서 하위범주는 29개가 나타났다. 하위범주는 다시 14개의 상위범주로 도출되었고,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범주와 연결된 핵심범주는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상황과 관련된 상위범주로는 '상황적 조건'과 '기대', 맥락은 '모유수유의 당위성'과 '사회적 인식', <모성인식을 통한 조정>이라는 핵심현상은 '어머니로서 자각', '어울림', '헤아림' 등의 상위범주가 통합되어 나타났다. 중재상황은 '편안함의 추구'와 '외적 환경의 영향', 상호작용전략은 '의사소통', '검토하기', '강화하기',

'확고함'의 상위범주들이 '다져나가기'로 통합되어 나타났으며, 결과는 '최상의 결정', '조절', '타협'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어머니가 수유방법을 결정하는 경험과정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주간의 관계진술과 가설적 관계개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수유방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동안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간호사는 임신한 여성이 아기수유방법을 결정하는 동안 모성으로서의 자각과 함께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의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간호교육에서는 대상자 중심의 아기 수유상담과 간호를 위한 교육적 자료로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상호작용 전략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수유지도를 위한 구체적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도해 본다.

## 참 고 문 헌

- 권숙희 등(1993). 모유수유 실천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86.
- 김신정, 이정화 (1993).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5, 33-65.
- 김신정, 양숙자 (1997).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27(3), 477-488.
- 김옥원 (1974). 산후 유방 마사지 및 유즙압출이 출유 및 유즙 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5(2), 74-89.
- 김혜숙 (1995). 의료요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신념, 지식정도의 비교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243-53.
- 김화숙 (1991).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효진, 박영숙 (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3, 377-96.
- 남은숙 (1995).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이 모유수유행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남철현 (1984).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한국보건의학회지, 2, 133-39.
- 박옥희 (1992). 임신중 유방 간호가 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22(1), 29-41.

- 변수자 (1995). 취업모의 모유수유실태와 지속방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2), 137-51.
- 변수자, 한경자, 이자형 (1994).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서울시(1993). 모유수유율 조사결과 보고서.
- 송지호, 김순애, 문여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마혜, 최양자 (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3), 153-65.
- 신재순 (1986). 분만후 유방 관리가 유방의 정상 상태 유지, 유즙분비 및 자궁 복구 상태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오현이, 박난준, 임은숙 (1994). 성공적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이미라, 서연옥, 조정호, 김태임, 박영숙, 박송자, 박인숙, 박종숙, 이해경, 임현빈, 조동숙, 주숙남, 최상순 (1993). 전통적 모유량 증가 방법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42-52.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 (1994). 모유수유 관련 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 요구. 간호과학, 6, 76-85.
- 이충원(1993). 대구 시내 일부 병원 분만 산모에서 사회적 지지, 사회 조직망과 모유수유 중단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구.
- 정금희 (1997). 모유수유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정문숙 (1993). 간호사의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지식과 간호 활동. 모자간호학회지, 3(2), 187-96.
- 정혜경, 이미라 (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41.
- 한경자, 이자형, 변수자 (1994). 대한간호협회의 '모유 먹이기'홍보 활동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한간호협회출판부.
- Bottorff, J. L. (1990a). Persistence in breast-feeding: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J Am Nursing, 15, 201-9.
- \_\_\_\_\_ (1990b). Mother's perception of breast milk. JOGNN, 19(6), 518-27.
- Camerson, M. and Y. Hofvander(1983). Manual on feeding infant and young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 Dickman, S. R. (1979). Breast-feeding and infant nutrition.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4).
- Dusdicker, L. B., B. M. Booth, B. F. Seals, and E. E. Ekwo (1985).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gravida women. Soc Sci Med, 20(7), 695-703.
- Entwistle, F. (1991). The most natural function. Nursing Times, 87(18), 25-26.
- Goodin, L., and P. A. Fried (1984). Infant feeding practice: Pre-postnatal factors affecting choice of method and the duration of breastfeeding.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75, 439-44.
- Harrison, M. J., J. M. Morse and M. Prowse (1985). Successful breastfeeding: The mother's dilemma. JAN, 10, 261-69.
- Helsing, E. (1985). Infant feeding and infectious illness. Repor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penhagen: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 \_\_\_\_\_ (1990). Supporting breastfeeding: What governments and Health workers can do. Int J Gy Ob, 31, 69-76.
- Houston, M. J. (1986). Breast-feeding, fertility and child health. JAN, 11, 35-40.
- Houston, M. J., and P. A. Field (1988). Practices and policies in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JOGNN, 17(6), 418-23.
- Jensen, D., S. Wallace and P. Kelsay (1994). A breastfeeding charting system and documentation tool. JOGNN, 23(1), 27-32.
- Jones, D. A. (1986). Attitudes of breast-feeding mothers: A survey of 649 mothers. Soc Sci Med, 21(11), 1151-156.
- Judy, J. C., J. M. Mary, K. Mary, B. Peggy, and B. Sander (1985). Concerns of breastfeeding mothers from birth to four months. NR, 34(6), 374-77.
- Kim S. J., Jeong G. H., J.(1999). The meaning of breastfeeding in Korean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5). 1042-1048.

Kearney, M. H. (1988). Identifying psychosocial obstacles to breastfeeding success. JOGNN, 17(2), 98-104.

Koctu7 R. and R. Zetterstrom(1989). The promotion of breastfeeding and maternal attitude. Acta Ped Scand, 78, 817-23.

Linda, S., and B. Debi (1990). The Infants contribution to bresatfeeding. JOGNN, 19(3), 209-215.

Magaret, H. K., and R. C. Linda (1990). Breast-feeding problems in the first week postpartum. NR, 39(2), 90-5.

Marchand L., Morrow M. H. (1994). Infant feeding practice : understand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Clinical Research and Methods, 26(5), 319-324.

Martich, J. R., and L. S. Sims (1992). A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variables between women who intend to breast or bottle feed. Soc Sci Med, 34(8), 919-27.

Parlato, M. B. (1990). The use of mass media to promote breastfeeding. Inter J Gynecol Obstet, 105-110.

Strauss, A. and Glaser, B.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Aldine Pub Com.

Strauss, M. and J. Corbin (1990). Basic of Qu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L: SAGE pub.

Toni, S. (1990). Bottle or breast: The first big decision. Nursing Times, 86(35), 63-5.

Walker, L. O. (1992). Parent-Infant nursing science: pardigms, phemonena, methods. Phiadelphia: F. A. David com.

WHO and UNICEF (1989). Protecting, promoting and supporting breastfeeding. The special role of maternity service. Geneva, 17-9.

Wrigley, E. A. and Hutchinson, S. A. (1990).

Long-term breast feeding: The secret bond. Journal of Nurse-Midwifery, 35(1),35-41.

Yeung, S. A., and M. Kaufman (1988). Promoting breastfeeding at a migrant health center. Am. J Public Health, 78, 523-25.

-Abstract-

key concepts : Decision-making Process, Infant Feeding Method

## The Pregnant Women's Decision-making Process about Their Infants Feeding Method\*

*Jeong, Geum-Hee\*\* · Kim, Shi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pregnant women's decision-making process about their infants feeding method. Data collection involved the in-depth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12 participants from January 1998 to January 1999. Data analysis was done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 112 concepts, 29 sub-categories were confirmed in the analysis. The sub-categories were again grouped into 14 categories: expectation, situational condition, inevitability of breast-feeding, social recognition, self-awareness as mother, harmony, consideration, pursuit of ease, effect of external environments, lack of knowledge, hardening, the best choice, control, and bargain. "Adjustment through recognizing of motherhood" was the key category that was related to all categories. "Adjustment through recognizing of motherhood" was a process in which the mother became aware of mothering and sharing, and in which she considered herself or infant's needs and their priorities.

\* This is supported by Hallym University 1997~1998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Hallym University

This research will help nurse to understand mother's needs better. Therefore, nurse will be

able to assist mother making the best decision for herself and her infant.